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을 넘어 ‘합리’로 풀자

〈公論〉

〈合理〉

/ 뉴스 초 점 / 16년 광주 현안 ‘공론의 닷’에 갇히나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혁신 교통시스템 구축’에 초점 맞춰야  
해묵은 현안... 시민 피로도 높아 결정 미루면 부담만 더 쌓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또다시 ‘공론(公論)’의 닷에 갇힐 조짐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합리(合理)’의 틀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론’이라는 명분과 절차를 내세워 특정 의견을 관철시키려하거나 객관적인 지표,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도시철도, 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혁신적인 도시교통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공공교통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당초 취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2호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 찬성 입장=광주시와 상당수 시민들은 2호선의 설치로, 반쪽자리 1호선을 보완해 공공교통의 ‘축수’가 도시 전반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16년간 ‘답’이 없는 논쟁만 계속해오면서 1호선의 기능 저하, 적자 누적, 외곽 거주자 중심 승용차 급증, 도로 설치 예산 과다 투입 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4년 민선 6기 당시 공론 과정을 거쳐 건설을 결정했으며, 최근 차량선정과 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만큼 사업포기 때 최소 500억원 이상의 매몰 비용(사업 포기예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주장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 도로체계에서 불가능하며, 계획이 변경될 경우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2호선의 포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치비 적고 선진도시의 상징인 노면

전차로” 반대 입장=투입 예산에 비해 효율성,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2호선 자체를 반대했던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공사방식을 기존 ‘저심도(지하를 낮게 파는 방식)’에서 ‘노면전차(도로의 중심부분에 철로를 까는 방식)’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 중심부분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드는 방식)’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론을 통해 어떤 방식을 시민들이 선호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미다. 2호선 건설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민선 6기 초기 공론 과정에서 2호선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았으며, 이용습 시장이 당선과 함께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14~2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접수된 시민의견 463건을 분석한 결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노면전차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우 시설비는 크게 절감할 수 있지만 설치 가능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데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찬반이 아닌 도시철도 중심 교통시스템 구축해야=광주시는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현재 3.5%에서 12.1%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 경유 및 1호선과의 연계 환승으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승용차를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까지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시스템이 새로 구축돼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추진하고, 노면전차 등은 2호선 지선이나 대로를 중심으로 신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노면전차를 2단계 일부 구간에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행·재정력 낭비,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2호선에 투입되는 국비 1조2347억원 등 2조579억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등의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가 2호선 사업을 또 한 번의 공론 과정



도심 숲 힐링 피서 무더위가 찾아온 5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생태숲길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을 거쳐 추진하더라도 2024년까지 발행할 6586억원의 지방채 부담, 도시철도 적자 누적 등에 대한 해법은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여론은 찬반 양측이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정은 하되 그에 반대하는 여론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가 민선 7기의 과제이며, 적절한 시점에서 균형잡힌 틀

속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습 시장은 ‘찬 바람 불기 전’이라고 밝혔지만, 시청 내부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좀 더 일찍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선 4기부터 해묵은 현안으로, 시민의 피로도가 높은데다 더 이상 결정을 지연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이번엔 시작될까

광주시, 민간사업자 2차 공모...민선 7기 추진속도 주목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2차 공모를 계기로 그동안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민선 7기 들어 추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5일 “지난달 광주혁신위원회에서 재공모를 건의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민간사업자 2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는 기존에 민관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규모, 사업 참가 자격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1차 공모지침과 동일하다. 다만 평가방법은 일부 보완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사업계획서 가운데 개발계획은 기존과 동일하게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자가 공공편익 등의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

게 했다. 다만, 개발대상 유원지 전체 면적 41만7531㎡ 가운데 상가시설 면적은 2만4170㎡로 제한했다.

광주시는 사업에 대한 집의를 오는 12~16일 제출받아 20일 회신할 예정이다. 또 사업계획서를 9월 7일 접수해 시민평가단과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차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2차 공모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1차 공모 보다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업제안 공모의 제한사항이 최소화된 만큼 창의적인 개발계획으로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결과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5개 업체 가운데 실제 사업계획서는 1곳이 됐으나 평가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선 남행열차엔 추억이 흐른다

광주~나주~무안~목포

전남도, 관광테마열차 운행

호남선 남행열차가 추억을 담고 달린다. 나주역사 주변에 로컬푸드 팩토리를 조성해 막걸리·맥주 파티를 하고, 60~70년대 활기 넘치던 다시역은 철도마을로 재생, 철도여행 명소로 육성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KTX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폐선이 되는 기존 철로를 이용해 관광테마열차를 운행하는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래·문학작품 속 호남의 애환·슬픔을 상징하는 ‘남행열차’를 모티브로 활용했다.

광주~나주~목포간 테마열차를 운행하고, 나주 로컬푸드 팩토리 등 역사 및 역전마을에 특색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마을재생 사업이다. 나주 다시역과 무안 몽탄역 주변을 철도마을로 재생하고, 나주역·무안역·목포역은 주변 관광투어 거점으로 활용한다.

전남도는 광주~나주~무안~목포로 이어지는 노선을 1차 운행구간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1차 구간에 임성리·보성·순천, 보성·화순·광주로 이어지는 경전선 노선을 연계, 순환형 관광열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기본구상’에 의한 실행계획 공모에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예상 사업비는 119억원 규모다.

전남도 관계자는 “테마관광열차를 도입해 서남권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철도마을을 조성해 창업·귀촌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고밀량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며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은수 녹차 장제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 g [560 mg X 90정]

V-B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